

[서문]

두번째 백년의 출발점,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조망



출처: pngwing.com

출처: pngwing.com

본 특집호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에 대한 전면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번 당대회가 지닌 시대적 의미가 중차대하다는 점에서, 즉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첫번째 백년)의 ‘소강사회(小康社會) 실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두번째 백년)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중국의 출발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를 놓고 고민한 결과를 실었다. 경제뿐 아니라 산업, 기술, 과학, 국방,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미국의 전면적 견제를 뚫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려는 중국의 치열한 응전은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자유주의의 퇴조 및 심각한 양극화 등의 복잡한 정세와 맞물려 21세기 동시대를 살아가는 전 국가와 시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시진핑 집권기에 해당하는 18차, 19차, 그리고 20차 당대회 정치보고를 비교한 결과, 아래와 같이 시기적으로 연계와 조정, 그리고 확대가 이뤄졌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소강사회’ 부분이 빠진 반면, ‘과학기술’·‘교육흥국(科教興國)(5장)’, ‘의법치국(依法治國)(7장)’, 그리고 ‘국가안전’(11장) 부분이 새로 첨가되었다. 시진핑 3기 정부가 미국과 서방의 제재국면을 맞아 첨단 과학기술 및 교육을 통한 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 권력이 집중된 ‘1인 지배’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고 비판을 우회하고자 법치를 활용할 거라는 사실, 그리고 미증유의 위기 의식 속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전례 없는 고강도의 심혈을 기울일 것임이 드러난다.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시진핑 3기 정부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는 과거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본고에 실린 전문적 해설과 전망이 다가올 중국과의 공존에 필요한 지혜와 해법을 구상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목차	18차 당대회	목차	19차 당대회	목차	20차 당대회
2장	중국특색 사회주의 달성	2장	신시대 중국공산당의 역사적 사명	2장	마르크스주의 중국화 및 시대화의 새로운 경계 개척
3장	전면적 소강사회 완성과 개혁 개방의 전면적 심화 목표	3장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기본방침	3장	신시대, 신과정 중국공산당의 사명과 임무
4장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완비와 경제발전방식 전환 가속화	4장	소강사회 및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적 건설	4장	신발전 구도의 신속한 구축과 고품질 발전의 추진
		5장	신발전 이념 관철을 통한 현대화 경제체계 구축	5장	'과학기술·교육흥국(科教兴国)' 전략의 추진과 현대화 건설 인재 육성 강화
5장	중국특색사회주의 정치발전경로 고수와 정치체제 개혁추진	6장	사회주의 민주정치 발전	6장	전 과정의 인민 민주 발전과 인민의 주인 역할 보장
				7장	전면적인 의법치국(依法治国) 견지와 법치 중국 건설의 추진
6장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	7장	사회주의 문화 번영	8장	문화 자신·자강(自信自强)의 추진과 빛나는 사회주의 문화 조성
7장	민생개선과 거버넌스 혁신에서의 사회건설강화	8장	민생수준 보장과 개선, 사회 거버넌스 강화와 혁신	9장	민생 복지의 증진과 인민생활의 질 제고
8장	생태문명 건설추진	9장	생태문명 체제 개혁 가속, 아름다운 중국 건설	10장	녹색발전 추진 및 인간과 자연의 조화·공생 촉진
				11장	국가안전(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 추진 및 국가안전(안보)과 사회 안정의 수호
9장	국방과 군대 현대화 가속	10장	중국 특색 강군 견지를 통한 국방과 군대 현대화	12장	건군 100년의 분투 목표 실현 및 국방·군대 현대화의 새 국면 개척
10장	일국양제와 조국통일	11장	일국양제와 조국통일	13장	일국양제의 견지·완비 및 조국통일 추진
11장	인류평화발전 추진	12장	평화발전 노선 견지를 통한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	14장	세계 평화와 발전 촉진 및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추동
12장	당건설의 과학과 수준 제고	13장	전면적 총엄치당을 통한 공산당 집정능력과 영도수준 제고	15장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관리 견지 및 신시대 당건설의 위대한 노정을 심화 추진